

'말의 고장'을 상징하는 인물, 김만일

조선 때 전국 최대 목장주로 조정에 말 1300마리 바친 '헌마공신'

데스크승인 2014.05.01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김만일(金萬鎰·1550~1632)은 '말의 고장'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조선시대 말을 키우던 그는 외세의 침입이나 국란 때 조정에 말을 바쳐 현재 부총리 급에 해당하는 벼슬에까지 올랐다.

김만일은 경주 김씨 제주 입도조인 김검룡의 7세손으로 조선 중기인 1550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서 태어났다. 김만일은 말을 키워 육지부로 내다팔아 부를 축적했다. 말들은 수천 마리까지 불어나 한라산 중턱을 가득 채웠고, 그는 당시 전국 최대 목장주로 성장했다.

김만일은 1594년(선조 27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말 1000마리를 실어 육지로 보냈다. 왜병에 맞서는 의병들이 타는 전투용으로 말을 지원한 것이다. 이 밖에도 그는 선조 33년과 광해군 12년, 인조 5년 등을 포함해 총 1300마리 이상의 말을 나라에 바친 것으로 전한다.

김만일은 공로를 인정받아 헌마공신(獻馬功臣) 칭호를 받고, 종1품(부총리급)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 그의 후손과 마을사람들은 200여 년간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을 역임했다.

제주도는 2009년 의귀리에 있는 김만일 묘역을 제주도기념물 제65호로 지정했다. 2008년에는 의귀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濟州馬(제주마)의 本鄉(본향)-衣貴(의귀)' 표석을 세웠다.

올해 말의 해를 맞아 김만일에 대한 조명·기념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그의 표준 영정 제작과 동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그의 이름을 딴 올레코스를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